

 <b>국토교통부</b>	<h1>보도자료</h1>		<small>국민의 내일을 위한 정부혁신</small> <b>보다나온 정부</b>
	<b>배포일시</b>	<b>2019.8.30. 총 7매(본문3, 붙임4)</b>	
<b>담당부서</b>	해외건설 지원과	<b>담당자</b>	• 과장 이상현, 사무관 이성훈, 주무관 이덕원, 전문위원 한희조 • ☎ (044) 201-3527, 3232, 3533
<b>보도일시</b>		2019년 9월 2일(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9.1(일) 11:00 이후 보도 가능	

## 전방위 수주지원을 위한 인프라협력 장(場)이 펼쳐진다

### ◇ 9.2, 제1회 한-아세안 인프라 차관회의(16시, COEX 인터콘티넨탈 호텔)

- 김정욱 국토부 제2차관 주재, 아세안 10개국 스마트시티 담당 부처 차관급 수석대표와 ‘지속가능한 스마트시티’ 협력방안 논의
- 금년 11월 개최예정인 한-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앞두고, 한-아세안간 인프라 분야 협력방안 조율하는데 의의

### ◇ 9.3, 글로벌 인프라협력 컨퍼런스 2019(10시, COEX 인터콘티넨탈 호텔)

- 박선호 제1차관 환영사, 반기문 국가기후회의 위원장 기조연설 및 해외 장·차관 등 주요발주처 38개국·100개 기관·160여명 참석
- 우리 건설회사, 공기업 등 국내 주요인사는 약 500명 참석하여 해외 주요 발주처와 주요 프로젝트 정보 교류 및 네트워킹 활동
- 정부 고위급 양자면담과 민간 1:1 상담회(약 400건 예정), 프로젝트 설명회(30건)를 통한 정부·민간 공동 전방위 수주지원 활동 강화

□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해외건설 수주의 전방위적 지원을 위해,

- 9월 2일(월) 「한-아세안 인프라 차관회의」(영문명칭 ASEAN-ROK High-level dialogue on Infrastructure)와
- 9월 3일(화)부터 5일(목)까지 「글로벌 인프라 협력 컨퍼런스 2019」(영문명칭 Global Infrastructure Cooperation Conference 2019)를 서울 코엑스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개최한다.

## 【 한-아세안 인프라 차관회의 】

- 김경욱 제2차관 주재로 열리는 「한-아세안 인프라 차관회의」는 아세안 10개 회원국의 인프라 차관급과 아세안 사무국이 참석한다.
  - 특히, 금년 한-아세안 인프라 차관회의 주제인 ‘지속가능한 스마트 시티’는 작년 개최된 ‘제1회 한-아세안 인프라장관회의’(18.9)에서 채택된 인프라 3대 협력 분야\* 중 첫 번째 의제로,
    - \* ① 스마트시티 협력, ② 스마트인프라 개발협력, ③ 국토정보 정책협력
  - 이날, 우리나라와 아세안 회원국 인프라 차관들은 급격한 도시화에 따른 과밀화 또는 노후화 등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‘지속가능한 스마트시티’를 논의하고,
  - 각국의 도시실태·정책·향후계획 등을 공유하면서, 합의의사록을 통해 향후 스마트시티 협력을 위해 우리나라와 아세안 10개국이 적극 협력할 계획임을 확인한다.
- 금번 회의는 올해 개최예정인 ‘한-아세안 특별정상회의’(11월, 부산)를 앞두고 우리나라와 아세안간 인프라 분야 협력방안 논의를 위해 마련되는 자리로써,
  - 현재 아세안 국가들이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‘아세안스마트시티 네트워크’ (ASCN) 등의 플랫폼에 우리기업들의 진출이 더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.

## 【 글로벌 인프라 협력 컨퍼런스 2019 】

- 그 다음날부터는 「글로벌 인프라 협력 컨퍼런스 2019」(이하 ‘GICC 2019’)가 개최된다.
  - GICC는 지난 2013년부터 정부와 주요 해외발주처, 다자개발은행, 건설·엔지니어링 기업간의 인프라 분야 협력과 우리기업 해외 시장 진출지원을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는 국내 최대의 행사로서,

- 올해로 7번째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(前UN사무총장)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개막하며,
  - 해외 주요 인사로는 몽골 도로교통개발부 장관, 태국 교통부 차관, 우즈벡 건설부 차관, 에콰도르 교통인프라부 차관 등 38개국·100개 기관·160여명의 주요 해외인프라 발주처가 참석할 예정이다.
  - 이를 통해, 주요 발주국의 장·차관 등 핵심인사를 초청하여 인프라 개발계획과 발주 예정 프로젝트를 공유하고, 1:1 수주 매칭상담과 다자개발은행 등의 투자지원 상담회 등이 개최된다.
- 박선호 제1차관, 김경욱 제2차관은 금번 행사계기로 17개국의 인프라 담당 장·차관과 릴레이 양자면담을 통해, 현지에서 활동중인 우리 기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인프라 협력외교 활동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.
-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“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지는 해외건설 시장에서 사업정보 획득과 인적 네트워크 구축은 해외 수주에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로, 신시장 개척에 걸증을 겪는 우리 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기회가 될 것”이라고 밝혔으며,
- “금번 행사 외에도 유라시아·아세안, 글로벌 플랜트·인프라·스마트 시티 펀드 조성, 사전타당성 조사 지원, 시장개척 설명회 등 우리 기업들의 해외건설 수주를 위한 정책적 지원도 만전을 기하겠다”고 덧붙였다.
- GICC 행사의 각종 설명회와 상담회에 참여를 희망하는 건설·엔지니어링 기업은 행사 홈페이지([www.GICC.kr](http://www.GICC.kr))에서 참가등록을 할 수 있고, 행사 당일 현장에서도 등록이 가능하다.

※ [첨부] 카드뉴스 “GICC를 소개합니다”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해외건설지원과 이성훈 사무관(☎ 044-201-3527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 국내 최대의 인프라 세일즈 외교의 장(場)

GICC를 소개합니다!

**GICC 2019**  
Seoul, Korea  
GLOBAL INFRASTRUCTURE COOPERATION CONFERENCE

September 3~5, 2019  
InterContinental Seoul COEX



**GICC 2019**  
Seoul, Korea  
GLOBAL INFRASTRUCTURE COOPERATION CONFERENCE

GICC는 해외 주요 장관 차관 등 발주처를 초청하여  
프로젝트 설명회, 1:1 상담회를 통해 우리 건설기업들의  
해외 수주를 적극 지원하는 **인프라 협력의 장(場)**입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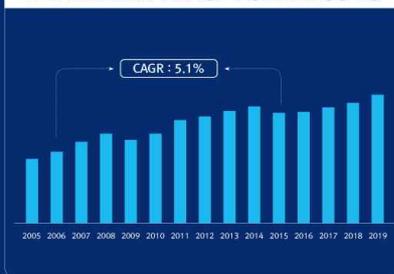


GICC는 범국가적 인프라 협력을 위해  
2013년 최초로 개최된 이후 매년 평균 약 30억불의  
수주 효과를 거두어 왔습니다.

2019년 6월  
오사카 G20 정상회의 선언문에서도  
지속가능한 성장 개발을 위한  
인프라 협력의 중요성은  
점차 증대되고 있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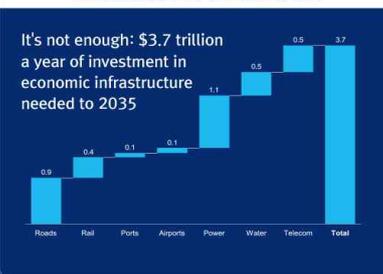
- 세계 건설시장 규모는 약 11조불로 매년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으며,
- 2035년까지 연간 인프라 수요 3.7조불 필요
- 2040년까지 인프라 수요 대비 18조불 투자 부족

2018~2022년 세계 건설시장은 연평균 6.3% 성장 전망



자료 : KPMG 제안서

2035년까지 인프라 수요 3.7조불 필요



자료 : 맥킨지 (2017.10)

2040년까지 18조불 인프라 수요 대비 투자 부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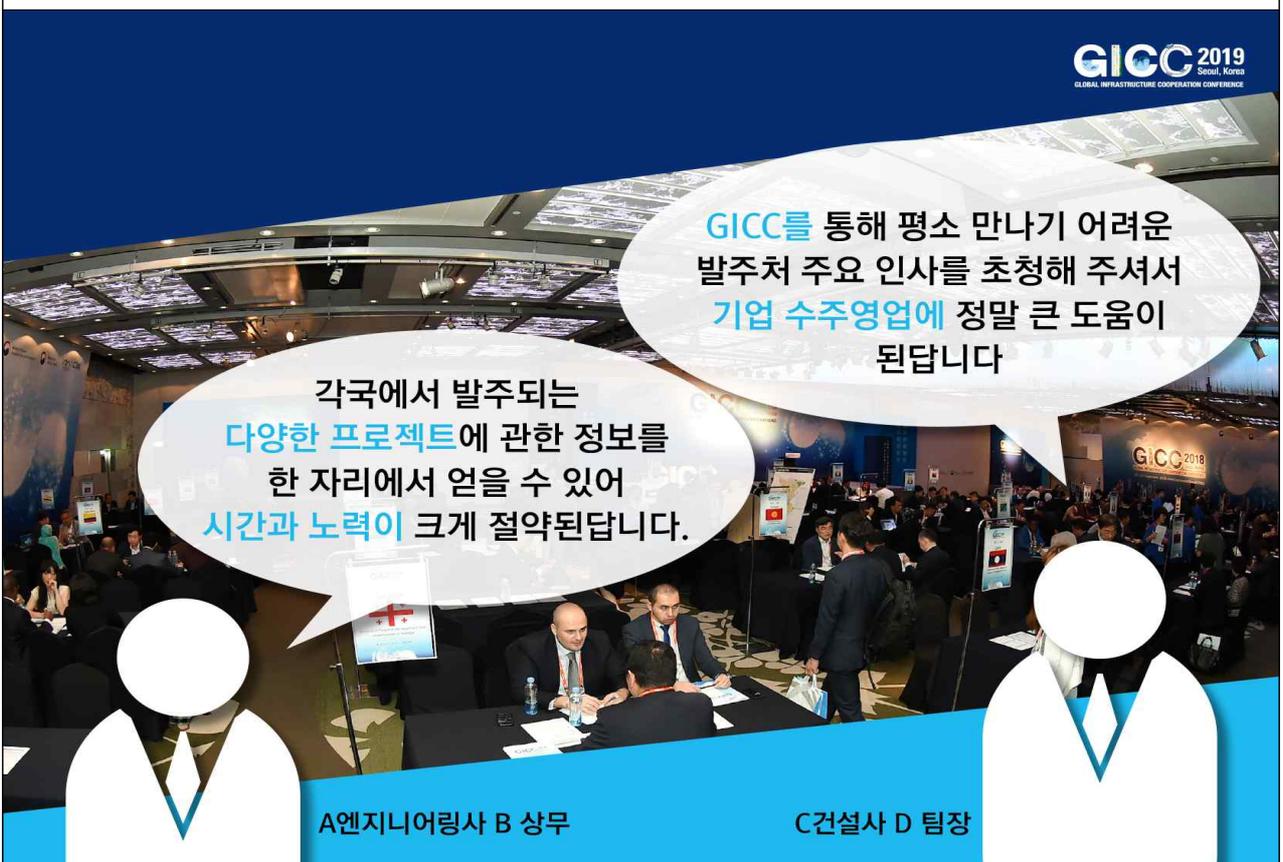


자료 : 세계경제포럼 (WEF, 2019.1)

이러한 세계적 흐름에 발맞춰  
올해 GICC 2019에는 총 45개국, 100개 발주처에서  
160여명의 인사가 참여할 예정이며



주요 발주처가 보유한  
1천억불 이상 규모 프로젝트 설명 및  
진출 상담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.



GICC를 통해 평소 만나기 어려운  
발주처 주요 인사를 초청해 주셔서  
기업 수주영업에 정말 큰 도움이  
됩니다

각국에서 발주되는  
다양한 프로젝트에 관한 정보를  
한 자리에서 얻을 수 있어  
시간과 노력이 크게 절약됩니다.

A엔지니어링사 B 상무

C건설사 D 팀장

# 앞으로, D-4일

GICC 2019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!



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.